

그대 이름은 여자:

‘전업,¹ 취업²’ 벽 넘어 ‘사회 주부’로³

주부 박소현(35) 씨는 요즘 심한 우울증에⁴ 시달리고^{5, U1} 있다. 같은 아파트에 여고 동창이⁶ 이사 오면서부터 나타난 증세다.⁷ 두 달 전 어느 날 아침 세수도 안 한 얼굴로 쓰레기 봉투를 버리러 가던 박 씨는 놀랄 만큼 세련되게⁸ 변한 여고 동창을 만났다. 바로 앞 동으로 이사 왔다고 인사를 건넨⁹ 동창생은 묻지도 않았는데^{U2} 화장품 회사에 다닌다는 사실을 강조한 뒤 진한 향수 냄새를 풍기며¹⁰ 사라졌다.¹¹ 박 씨는 “그 뒤로 꼭 내가 쓰레기 버릴 때나 땀 뻘뻘 흘리며 장바구니¹² 들고 갈 때만 마주치는 것 같았다.”면서 “고급¹³ 중형차¹⁴ 클래스까지¹⁵ 올려대며 잘난 척하는^{U3} 모습을 견디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여고 시절 우등생이었다는¹⁶ 박 씨는 당시 자신보다 공부도 못했고 예쁘지도 않던 친구의 변화에 좌절감을¹⁷ 느꼈다. 남편까지 “같은 동창인데 어쩜 그렇게 다르냐, 집에서 놀지만 말고 친구처럼 돈도 벌고 멋도 부려 보라”며¹⁸ 구박하기¹⁹ 일쑤였다.^{20, U4}

출판사²¹ 편집장인²² 이정희(37) 씨는 요즘 전업 주부²³ 친구들을 만나지 않는다. 아이들 과외,²⁴ 아파트 분양,²⁵ 유명 패션 브랜드, 연예인²⁶ 동정²⁷ 따위만이 그들의 관심사여서²⁸ 공통 화제가 없기 때문이다. 얼마 전 모임에서 “딸에게 학습지 과외도 안 시킨다.”는 이 씨의 말에 친구들은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아이들을 엉망으로²⁹ 키우느냐”며 일제히³⁰ 공격을 가했다.³¹ 이 씨는 “학교 다닐 때 그렇게 똑똑하던 여자들이 왜 결혼을 하면 가족만 알고 자신이나 사회 문제엔 관심을³² 가지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현재 살림만 하는³³ <전업 주부>와 직장 일을 하는 <취업 주부>의³⁴ 비율은³⁵ 50대 50으로 알려져 있다. 각종³⁶ 통계³⁷ 자료에³⁸ 따르면^{U5} 이들의 가계 수입은³⁹ 차이가⁴⁰ 나지만 저축액이나⁴¹ 행복도는⁴² 별 차이가 없다. 문제는 같은 주부면서도 이들은 서로에게 끝없이 적의와⁴³ 열등감을⁴⁴ 느낀다는 사실이다.

제일기획의 여론 조사에⁴⁵ 따르면 전업 주부의 70%가 “집안에만 있어 남에게 뒤쳐지고⁴⁶ 초라함을⁴⁷ 느낀다.”고 응답했다. 반면⁴⁸ 취업 주부의 88%는 <여성을 위한 모임>이 실시한⁴⁹ 조사에서⁵⁰ “자녀에게 얼마 노릇을 제대로 하지^{U6} 못해 죄책감을 느낀다.”고⁵¹ 실토했다.⁵²

전업 주부들은 자기 집 “쓰레기 분리 수거도⁵³ 제대로 하지 않고 반상회에도⁵⁴ 안 나오면서 매일 옷 차려 입고 밖으로 나가는 취업 주부들이 알밋다.⁵⁵ 취업 주부들은 전업 주부들에게 “백화점 세일이나 사우나에 다니느니 자원⁵⁶ 봉사라도^{57, U7} 하라”고 비난한다.⁵⁸

이 같은 양상에⁵⁹ 대해 전문가들은⁶⁰ 직업 여성에게는 가정 일에 소홀하다거나⁶¹ 남자 밥그릇을 뺏는다고 질책하고⁶² 주부에게는 능력 없고 뒤쳐졌다며 갈등을⁶³ 부채질하는^{64, U8} 남성들의 <분할 통치>⁶⁵ 때문이라고 진단한다.⁶⁶ 숙명여대 아세아 여성 문제 연구소 김영란 연구원은 “그동안 모성 역할을⁶⁷ 찬양해⁶⁸ 온 남성들의 술수로⁶⁹ 인해 여성들 간의 반목이⁷⁰ 심해졌다.”면서^{71, U9} “그 결과 여성끼리의 연대에도⁷² 큰 장애가⁷³ 되어 왔다”고 지적했다.⁷⁴

이후 주부들의 갈등과 고민은 더욱 커졌다. 현모양처로⁷⁵ 만족하던⁷⁶ 전업 주부들은 <돈 못 버는 것도 신 칠거지악^{U10}> 이라는⁷⁷ 말에 가위눌려^{78, U11} 어떻게 해서라도^{U12} 일을 찾으려 하지만 여의치 않다.^{79, U13} 간신히⁸⁰ 직장에 남았거나 자영업을⁸¹ 하는 취업 주부들은 여전히 일과 가정이라는 이중고에⁸² 시달리며 회사와 가족의 눈치를^{83, U14} 살피고 있다.

이처럼 갈등을 겪던 주부들이 점차 변화하고 있다. 여성의 적은 여성이 아니며 자신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먼저 전업 주부들이 변했다. 하루 종일 집안 살림에 시달리면서도 “집에서 논다”고 숨죽이며^{84, U15} 대답하던 주부들이 <무직자>가⁸⁵ 아닌 <프로 직업인>으로⁸⁶ 자각하기⁸⁷ 시작한 것이다. 그들은 명함에⁸⁸ <주부 아무개>라고 적어 이름을 되찾고 사회로 눈을 넓히고^{U16} 있다. <나와 가족>을 넘어 이웃과 세상 속으로 뛰어든^{U17} 것이다. 서울 송파구 전업 주부를 중심으로 모인 <푸르게 사는 모임>은 생활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⁸⁹ 정리해 재활용품⁹⁰ 전시회를 갖기도 하고 강연회를⁹¹ 열기도 한다.

Konu ile ilgili sözcükler

- 불평등
- 역학 관계
- 치맛바람
- 전업
- 취업
- 전업 주부
- 취업 주부
- 행복도
- 열등감
- 갈등
- 분할 통치
- 현모양처
- 눈치
- 직업인
- 무직자
- 죄책감
- 모성 역할

Tartışma Soruları

- Kore toplumunda kadının yeri
- Çalışan kadınlar ve çalışmayan kadınlar arasındaki çatışmalar
- Annelik ve iş kadınlığı arasındaki seçimler ve toplumsal sonuçları
- Çalışan kadınların iş hayatındaki konumları